

증상이나 성격이냐?

(간질성 황폐화)

지금으로부터 약 십 여 년 전 필자가 어떤 병원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당시 16세이던 어린 소년을 병원에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다. 오랫동안 간질을 앓아 왔던 그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길에서나 학교에서나 마구 쓰러지는 것을 본 주위 사람들이 제발 병원에 좀 데리고 가라고 자꾸만 권해서 데려온 것이었다.

그 어린 소년은 앞이마, 윗입술, 앞니 등에 이미 수없이 많은 간질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 그는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질 때면 여기 저기 부딪치고 깨지고 하였는데 그 빈도가 너무 잦아서 눈두덩이 갈아 앓을 틈이 없이 늘 부스스하고 윗니는 아예 양쪽 송곳니만을 남겨 두고 몽땅 빠져 버린 우스꽝스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진료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갑자기 그는 전형적인 전신 발작을 일으켰다. 양팔과 양다리를 짝 뻗으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긴장성 경련을 한 후 곧 팔다리를 반복적으로 꼬뺨거리는 간대성 경축을 하였다. 성대(聲帶)가 조이면서 독특한 소리(epileptic cry)를 “끄억 끄억”하고 냈다.

곧 바로 응급 처치가 시작되었고 그는 ‘경련 후 혼수상태’에 들어간 듯 유행가를 몇 곡 ‘군데군데’ 부르더니 수면 상태로 들어갔다.

이런 정도의 간질 환자를 곳과 민간요법으로만 치료해 왔다는 부모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는 입원을 시키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텼다. “약만 달라”는 것이었다.

일주일 뒤에 부모가 다시 찾아왔다. 일주일에 서너 번 씩 하던 발작이 지난주에는 한 번도 없었다며 좋아했다. “그래서 전에 다니던 특수학교에 다시 내보내고 있다”며 약만 계속 먹여 보겠다고 했다. 그 뒤로도 부모가 열심히 다니면서 약을 타다 주었다. 별다른 관심 없이 처방은 반복되었고 그것은 필자가 그 병원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병원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난 후, 그 소년의 부모가 찾아왔다. 필자가 그 병원을 떠난 후 부모는 웬지 병원에 다니기가 서먹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간질 발작이 전혀 없으니 “약을 그만 먹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임의로 끊어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약을 끊은

지 삼 개월쯤 뒤에 다시 발작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년이 땅바닥에 쓰러지는 발작뿐이 아니라 눈을 허영게 치켜뜨고는 부모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패는 이상한 발작을 하는 때도 있었다. 게다가 몽둥이나 불쏘시게 같은 것이 손에 잡히면 그걸 집어 들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을 그냥 사정없이 깔겨 버리는 무서운 난동을 피운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허벅지를 보여주었다. 퍼렇게 멍이 든 다리가 퉁퉁 부어 다른 쪽의 서너배는 족히 뭉직 해 보였다. 아버지는 그 동안 벌써 세 차례나 응급실을 찾아가서 머리를 꿰매고 왔다고 했다. 놀랍게도 그 부모는 이런 상황을 이를 악물고 몇 년째 버티는 중이었다.

전에 다니던 병원에 가서 몇 번이고 다시 약을 조절하였지만 그 난폭한 증세는 그냥 계속되었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 앓고 있던 전신 발작형 간질은 세월이 가면서 그 증상이 난동을 위주로 하는 측두엽 간질의 형태가 동반되었으며, 동시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성격상의 변화까지 동반되었기 때문이었다.

간질을 다시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는 ‘간질 발작으로’ 비몽사몽간에 부모를 때리게 되었는데 부모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동안에 그는 진짜로 간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질을 일으키는 척 하며 난동을 피워 부모를 멋대로 조종해 오고 있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치킨 사먹겠다”고 떼를 쓰고 돈을 요구하거나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사 달라고 조르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간질 발작을 하는 척하며 어머니를 걷어차거나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그러다가도 그 발작적 행동으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내가 왜 그랬지?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소름이 돋아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강제로 입원되었고 병실 안에서 ‘간질 하는 척’하는 행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후 단 한 번도 간질 발작 없이 퇴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 차례 더 입원했다.

간질을 오랫동안 반복하는 동안에는 성격의 변화가 확실히 온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대책 없고 쉽게 감정의 기복을 보이며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간질 환자의 성격을 따로 구분해서 간질성 성격(epileptic personalit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